

비번 날 동영상지원 서비스 활용 위급 환자 구한 소방관

한림119센터 근무 고진혁 소방사
환자는 병원 도착 후 의식 회복해

도내 한 소방관이 근무를 하지 않는 날임에도 구급활동에 앞장서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한림 119센터에 근무하는 고진혁 소방사는 비번일이었던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11분경 제주시 일도2동 인근에서 인도에 쓰러진 강모씨(61·남)를 발견하고 호흡 및 의식이 없는 심정지 환자임을 확인,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특히 인근에 있던 시민이 119로 신고하고 제주소방본부가 운영중인 119

영상동화 심폐소생술 동영상 지원 서비스를 활용해 정확하고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후 현장에 구급대원이 도착, 고진혁 소방사로부터 환자를 인계받고, 심실 세동이 확인돼 심장충격기 1회 실시해 호흡과 맥박이 돌아왔다. 구급대는 신속하게 병원 이송했다. 환자는 병원 도착 후 의식을 회복하는 등 정상으로 돌아왔다.

출동한 구급대 관계자는 "생명이 위급한 상태였는데 고진혁 소방사의 빠른 대처가 고귀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고진혁 소방사는 2019년 10월에 임용돼 서부소방서 한림119센터에 근무하고 있으며 제주의 안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구급 및 화재 진압 활동을 하고 있다. 이예리기자



한림119센터에 근무하는 고진혁 소방사는 비번인 날에 심정지 환자를 발견하고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

36.3 X 19.9 cm